

02	성시	나만의 시편 • 김선경 권사
04	말씀의 샘물	우리 동네를 알고 계신가요?
06	교육부 여름사역	하나님의 온기가 다정한 얼굴을 하고선 • 김지은 집사
08		우리들의 여름수련회 • 초등2부 조아라
09		천국을 누리는 자 • 청년부 양주성
10		청초한 여름의 사랑은 우리를 말해요! • 중등부 박민준
12		수련회를 통한 마음의 회복 • 고등부 황수미
14		화보모음
16	찬양한마당	“참 오랜만입니다” • 영암지 편집부
18	선교바자회	2024 해외선교훈련 소개드립니다 • 영암지 편집부
20		영암교회 바자회 Report • 영암지 편집부
22	향존직 피택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 이관택 장로
23		안수집사 직분을 받으며 • 최낙조 안수집사
24		선배님들을 따라가겠습니다 • 안경원 권사
26	추모의 글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 이연옥 장로님 • 이흥숙 권사
28	부흥사경회	사경회의 은혜 • 손미선 권사
30	예닮동산	예닮동산 98기를 다녀와서 • 양승배 안수집사
32	영암학당	영암학당을 통해 받은 풍성한 은혜! • 강미량 권사
34	일대일 양육	2023 일대일 • 김홍석 장로
38	성경일독 소감문	어? 성경이 읽어지네! : 구약 • 신약 성경일독학교 • 유부연 권사
40		성경 일독을 마치며 • 권은경 성도
41	자유기고	눈 뜬 소경 • 서경희 권사
42	신임교역자 소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 박재혁 목사
43		선한 씨앗을 심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길 소망합니다 • 김기동 목사
44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길 • 조예은 전도사
45	문화칼럼	사랑을 촉진 시키는 죽음에 대한 생각 • 강진구 안수집사
48	자유기고	새가족부를 마치면서 • 김영자 권사
48	새가족 소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50	영암소식	

우리 동네를 알고 계신가요?

-영암지 23년 봄 말씀의 샘물-



유상진 담임목사

영암교회가 안암동에 자리한지 70여년이 되어갑니다. 안암동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선교지입니다. 교회와 지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역에 관심을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 저는 이제야 안암동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아 우리교회는 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였습니다. 서울북노회가 속한 철원 동송지역 최고의 쌀인 오대쌀을 성도님들의 사랑을 담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취약계층에서 좋아하는 품목은 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쌀을 교환하는 쿠폰을 지급 받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라면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라면 상자를 쌓아놓고 전달하는 것을 전형적인 생색내기라며 금기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솝 우화에 여우와 학이 각각 접시와 호리병에 음식을 대접했던 것이 떠올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랑이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이웃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해야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단지 이웃에게 시혜를 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 이웃이 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후부터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 어려운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고, 성도님들의 밀알헌금을 모아 한겨울에 원하는 전기요와 이불 세트를 안암동과 보문동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연스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 사회복지협의체)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아울러 현재는 주민자치회에서도 안암동의 현안과 필요를 파악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안암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암동을 위해 영암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현장, 구청장실 등을 통해 마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수와 분포, 삶의 형편, 압도적 비율인 1인 가구, 단절된 채 고립된 청년들, 개발이 요원하기에 정체되어있는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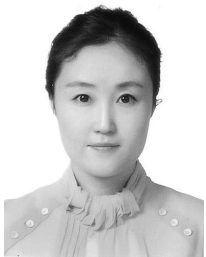
등. 80대에서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위원들이 모여 지역과 주민에 관심과 사랑을 쏟는 열정을 보면서, 당장 현안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안암동을 향한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 안암동에 전혀 무관심했던 안일함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소명’의 저자인 오스 기니스는, ‘당신의 주변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 몇 명을 꾸준히 알고 지내는지’를 질문합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이웃 사랑을 실현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통, 반장에서부터 구의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지역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섬김은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는 현재 안암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동네’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우리 동네에 한 발짝 다가서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엔데믹 시대 우리가 품어야 할 자리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동네 사람들입니다. Y



하나님의 온기가 다정한 얼굴을 하고선



김지은 집사
(영아부 조재준 엄마)

우리의 여름성경학교는 바람 가득한 동그란 풍선과 함께 시작되었다. 아이의 손에 들려진 노오란 풍선은 수소를 가득 머금은 채 하늘을 향해 둥둥 떠 있었다. 엄마만 바라보던 아이의 시선은 풍선을 의지한 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내 품 안에서 머물던 아이는 조금씩 하늘 소망을 향해 아장 아장 작고 서툰 걸음을 시작했다.

여름성경학교 첫 날, 낯선 긴장감으로 썰쭉하던 얼굴이 점점 풍선처럼 웃음을 머금고 둥글둥글 부풀어 올랐다. 입도, 눈도, 얼굴도 그렇게 동그랗게 환해졌다. 바람에 춤추는 풍선을 따라 교회 안을 힘껏 뛰어다니던 아이는 예배당 안에 가득한 온기를 온 몸으로 맞이한다. 목사님, 선생님들의 반가운 웃음, 달달한 인사, 따뜻한 손길로 채워진 그곳은 따스한 표정의 다정한 얼굴이었다. 하나님의 온기가 다정한 얼굴을 하고선 조금씩 조금씩 아이들에게 스며드는 듯했다. 따스한 마음이, 뭉클한 애정이 가득했던 여름성경학교에서 아이는 밝고 환한 웃음을 되찾았다.

풍선은 바람을 따라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달아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규칙한 움직임이 꼭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듯 아슬아슬했다. 아이는 풍선을 따라잡느라 숨이 가쁘다. 엄마의 염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는 예배당 안을 가로지르며 힘껏 달린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3~4)

무수한 넘어짐, 탄식의 경험은 존재하는 가장 낮은 그곳에서 풍선의 경로를 파악하고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일임을 깨닫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듯 예배당 안 가장 안전한 자장 안에서 아이와 풍선은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었다. 성경학교가 아니라면 발견하지 못했을 가장 순수한 믿음의 자유였다.

성령의 다정한 응원을 입은 아이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시편50편5절) 성경학교 말씀송을 나직하게 흥얼거리고, ‘다윗처럼’을 찬양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온 몸을 이

리저리 흔들기도 한다. 설교 시간에 등장했던 ‘언약궐’ 모형에 다가가 만지작 만지작 하며 말씀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감촉하듯 두 손으로 말씀을 감싸 안았던 시간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예!예!’를 힘껏 외치듯 가장 즐거웠던 로고스 웨이에서의 물놀이는 명량한 웃음을, 반짝거리는 마음을 되찾는 일이었다. 목사님, 선생님들 품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를 지켜보던 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쌓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내 기억 속에서 잊지 못할 순간은 대부분 아름다운 온기로 다가온 것들이다. 특히 평범하던 일상을 벗어나 어릴 적 여름성경학교에서의 기도, 교제, 말씀, 찬양은 내 일상의 온도를 높이는 일이었다. 삶에 내려 앉은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반짝이게 닦아내는 시간, 차가워진 신앙의 온도를 따스하게 데우던 순간.

어린 시절 교회 안에서의 따스한 호혜를 입은 내가 지금 나로 피어났듯 성경학교는 아직 씨앗인 채 영글고 있는 아이에게 퇴비를 주고 물을 뿌리를 일임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햇빛과 물과 공기 같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 안에서 나와 우리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작은 씨앗 하나가 고요히 움트고 있었다.

씨앗이 움트고, 뻗은 뿌리 위로 피어오른 것들은 가장 진실한 고백이 된다.

이 모든 것 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주님께 영광을! **Y**

우리들의 여름수련회



초등2부 조아라

드디어 여름성경학교의 문이 열렸다.

코로나로 작은 걸음도 조심스럽던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지으신 크고 활기찬 걸음으로 드넓은 자연의 문을 활짝 열었다.

여름 수련회 장소인 가평 좋은 아침 연수원에 도착했다. 입구에 들어서자 하나님의 마음처럼 멋진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다.

푸른 나무들도 가득했다. 덕분에 내 마음도 푸르러졌다.

첫째 날에는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진 날이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어울려 서로의 빛나는 얼굴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만났다.

둘째 날에는 피곤했지만 은혜 넘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예배를 드렸다. 야식을 먹기 전에 불을 끄고 촛불같이 생긴 장난감으로 불을 켜 차례차례 놓으면서 "나는 조아라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처럼 푸근했다. 꼭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았다.

몽글한 마음들이 수련회 강당 안에 가득 채워졌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고 아이스크림, 라면 등 맛있는 간식들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특히 저녁은 바베큐 파티를 했다. 입 안으로 들어오는 고기 맛이 꿀맛 같았다.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물놀이였다. 모두의 기도가 맑은 날씨로 응답되었다.

적당한 더위에 계곡물도 시원했다. 주변의 풍경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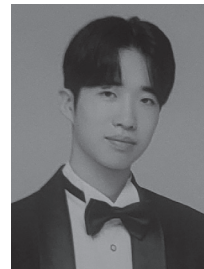
그런데 수련회에서 아쉬운 점이 2가지 있었다.

첫째는 사진 속 기대했던 2층 침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아쉬웠다.

둘째는 실내 수영장도 기대했는데 계곡만 있어 아쉬웠다.

하지만 좋은 시설과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있던 이번 여름수련회는 정말 최고였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행복한 여름수련회였다. Y



청년부 양주성

20살 청년부 양주성입니다.

저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고 고2 때 세례 문답을 받았습니다. '태어나 보니 영암교회 뜰 안에 있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를 열심히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에는 학원에 다니다 보니 주일에 교회에 자주 나가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나오지 못하고 청년부에 처음 나올 때는 친구들과도 조금은 서먹서먹하고, 다른 친구들은 중 고등부 교사로 섬기는데 저는 주일만 나오니 아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8/13부터 8/15까지 경북 봉화에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3시간 넘게 달려가 보니 푸른 산과 넓은 자연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었고, 물놀이를 2번이나 하면서 친구들과 더 친해졌습니다. 권사님들이 맛있는 밥을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집밥을 먹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최석빈 목사님의 청년의 때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도 기억에 남는 저의 20살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저는 먼 곳에서 온 형들, 누나들, 전도사님, 목사님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주변 사람들과 작은 것이라도 더 나누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진정한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박 3일이란 많지도 적지도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추억을 쌓은 것 같습니다. 이 수련회에서 저는 말 그대로 물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저를 격려하고, 새로운 힘을 주며, 내 삶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수련회에서 들은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Y

청초한 여름의 사랑은 우리를 말해요!



중등부 박민준

교회는 오랜만이다. 어릴 적 교회를 다니다 한참 다니지 않게 되었었는데 최근 개인적으로 여러 일이 있었을 때 친구가 교회를 다녀보라고 해서 올해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중 중등부 수련회를 한다고 하여서 참여 신청을 했다.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다리며 가기 전 많은 고민을 했다. 그 중에서도 아직 덜 친한 중등부 친구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할까? 라는 고민을 가장 크게 했다. 생각을 많이 하던 중 어찌어찌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다.

수련회를 하면서 내 기억에 남은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날 캐리비안 베이에 갔다 온 뒤 고등부와 중등부와 같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찬양을 하였다. 찬양에서 고등부 형 누나들이 열심히 뛰시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우리도 그렇게 찬양을 하였다. 힘들었다. 그러나 내심 즐거웠다.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나도 이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크게 받은 것 같아서 그랬을까? 기억에 남은 또 다른 활동으로 강사님이 오셔서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활동을 하며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어떠한 목표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은 것은 여러 레크리에이션과 퀴즈였다. 나는 여러 팀 중 '우리' 팀이 되었는데 우리는 모든 활동에서 다 최저 등수를 기록하였다. 모든 활동에서 가장 낮은 등수를 기록하여 아쉬웠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너무 즐거웠다. 이번 수련회에서 빠지지 않고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부주제인 '청초한 여름의 사랑은 우리를 말해요'이다. 이것은 내가 제안한 부주제이다. 이 부주제는 수련회를 하기 전에 채택되었다. 그때 난 중등부 친구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아 풀이 죽기도 하고 괜히 제안한 것 같아 후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련회를 하면서 이 부주제를 칭찬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셨다. 레크리에이션 팀 이름도 각각 "청초, 여름, 사랑, 우리" 였다. 이 외에도 열심히 내가 쓴 부주제를 사용해 주셨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다. 지금은 그 부주제를 잘 쓴 것 같다고 느껴 '청초한 여름의 사랑은 우리를 말해요'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이 글 초반 부분에 말했던 아직 덜 친한 중등부 친구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할까? 라는 고민은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 같다. 여러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친해졌다. 특히 둘째 날에 오랫동안 놀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 친구들과 친해졌다. 물론 전부 다 친해지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내 기준에서는 정

말 많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오게 되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다니 나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면서 나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믿음, 사랑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언제쯤 다 정리될지는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어떻게든 정리하려 노력해보니 새로운 생각들이 꽃피우면서 그것을 통해 믿음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 이번 수련회는 부정적인 경험도 몇 가지 있었으나 긍정적인 경험이 그것을 덮을 정도로 좋았다.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고 나의 믿음도 더욱 커졌고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발판이 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롭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 수련회를 참가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잊지 못할 경험이라 생각한다. 내년에는 고등부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새로운 환경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적응해야 하다 보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처럼 지금과 같은 생각과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고등부에서도 지금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행복한 삶이 되도록 힘내자~! Y



수련회를 통한 마음의 회복



고등부 황수미

내가 매년 교회 수련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회복이었다.

평소에는 기도와 말씀이 충분하지 않아서 뭔가 메마르고 삶이 풍족하지 않게 느껴지는데 수련회에 가면 약간 반강제로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찬양도 많이 하게 되고 말씀도 많이 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때문에 수련회는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이번 수련회에 참여한 이유도 항상 그렇듯이 회복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항상 설교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회복을 해왔는데 이번 수련회에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이 회복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일단 로렘에서 다 같이 찬양 부를 때 정말 은혜로웠다. 찬양 가사가 나의 이야기 같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어서 눈물이 났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로렘에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한 것도 너무 좋았다. 솔직히 같은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대화할 기회도 별로 없고 이야기해도 정말 간단하게 필요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던 것 같다. 교회 사람들의 비전, 생각,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 이 공동체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고 정말 가족 같았다.

조금 아쉬운 점은 나는 짝수여서 다른 짝수와도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홀수와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이런 질문을 받았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무엇이냐?고. 이 질문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질문이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란 그냥 하나님 그 자체였다. 뭔가 나와 상관없어 보이고, 정말 신이고 거리가 느껴지는? 그러다가 커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하나님이 궁금해졌다. 제일 궁금했던 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시련도 주시는 걸까?>였다. 나는 오랜 시간 끝에 답을 얻어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나와 1:1 관계라는 것이다. 그 사이에 누군가 끼여있지 않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만든다면 그것은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것이고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선택을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지만,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 인간은 대부분 행복하고 고민

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주실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고하시고 힘들게 우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더욱 하나님 안에서 끈끈해지길 원한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계속 감동만 받은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Y





2023년 영암교회 교육부 드림미나스트리 여름사역			
일 / 정 / 안 / 내			
영유아부	하나님께 예! 예! 예! (시편 50:5)	날짜 7월 8, 9일(토, 주일)	장소 교회
유치부	하나님께 예! 예! 예! (시편 50:5)	날짜 7월 15, 16일(토, 주일)	장소 교회
초등1부	나는 믿음의 사람! (히 11:1)	날짜 7월 22 ~ 23일(토, 주일)	장소 교회
초등2부	나는 믿음의 사람! (히 11:1)	날짜 7월 21 ~ 23일(금 ~ 주일)	장소 가평
중등부	Drop the 빛 (요 1:4-5)	날짜 7월 28 ~ 30일(금 ~ 주일)	장소 교회
고등부	달리다꿈 (창 37:5-6)	날짜 7월 27 ~ 29일(목 ~ 토)	장소 교회
청년공동체	聖徒, 우리의 정체성 (딤후 1:14)	날짜 8월 13 ~ 15일(주일 ~ 화)	장소 경북 봉화

“참 오랜만입니다” 〈2023 추수감사절 찬양한마당〉

2023년 10월 8일 찬양한마당이 열리기 전에 교회는 이미 축제분위기가 되었다. 한 달여 간의 연습기간 동안 분주한 발걸음들이 교회 건물을 오가고 교회 곳곳에는 찬양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선교회 회원들과 여전도회 회원들이 곡을 선정하는 것부터 화음을 넣기 위해 파트를 나누거나 율동을 연습하고 의상을 정하는 모든 과정은 성도가 교제하는 온기를 새삼스레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드디어 추수감사절 찬양한마당 날, 오후 2시가 되자 본당 3층 예배실 좌석을 가득 매운 성도들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감동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앞줄부터 가장 뒷줄까지 알록달록한 의상을 입고 빼곡히 앉은 성도들의 모습은 찬양한마당에 활기를 더해 주었다. ‘온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시편 100편)로 유상진담임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며 시작을 알렸다. 5남선교회 윤한결안수집사와 6,7여전도회 회장인 김지연권사의 재치 있는 사회로 찬양한마당이 진행되었다.

총 15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어르신 5팀(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연합팀, 한나, 에스더, 마리아, 유니게) 남선교회 4팀, 여전도회 6팀이 순서에 맞추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다. 고령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악기와 함께 찬양을 들려주시는 모습은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찬양을 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여주었다. 그런가하면 2남선교회는 장구, 징, 북을 들고 신명나는 찬양을 선보였고 1남선교회는 찬송가를 편곡하여 마라카스로 흥을 더하며 찬양했다. 4,5남선교회 연합팀은

군가를 부르듯 찬양을 하며 행군하는 보여주었고 고등부 밴드의 찬조로 풍성함을 더했다. 여전도회 팀들의 아름다운 화음이 어우러진 찬양과 탬버린, 그리고 춤을 더한 찬양도 웃음과 기쁨을 주기에 충분했다. 여덟 번째 6,7여전도회 연합팀의 순서가 끝나고는 길성현, 민다희 부부의 특선이 있었다. 한마음으로 부르는 성악가 부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한마당의 열기를 승화시키며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15번째 마지막 5여전도회 순서 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까지 성별과 연령을 초월해 참여한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를 마지막으로 찬양한마당의 막을 내렸다.

찬양한마당을 끝까지 지켜보던 김홍석 장로님은 “코로나때보다 더 많이 모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다 함께 볼 수 있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며 반갑고 기쁜 마음을 전해 주었다. 줄곧 찬양한마당을 지켜보며 웃음을 잃지 않았던 유상진 담임목사님은 “추수감사절 찬양한마당은 코로나 이후 다시 남녀선교회가 모이는 기쁨의 잔치자리였어요. 무엇보다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아서 은혜가 되었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함께 모여 감사고백의 찬양을 할 수 있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라고 소감을 전해 주었다.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추수감사절 찬양한마당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Y**

〈안태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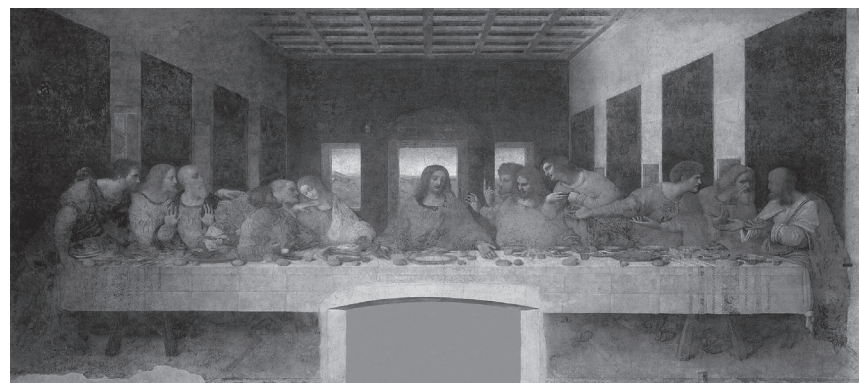
2024 해외선교훈련 소개드립니다

2024년 해외선교훈련은 “삶에서 신앙으로, 분쟁에서 화해로!”라는 모토로 진행되어집니다. 특히 16세기 종교개혁의 신앙을 배우고 이 신앙을 통해 화해케 하는 교회의 사명을 자각하여 평화의 사도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에 종교개혁의 여명을 밝혔던 인문주의와 르네상스의 중심지인 피렌체와 밀라노에서 선교훈련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개신교 운동이 전개되었던 제네바와 파리를 방문합니다. 제네바에서는 개혁신학을 기반으로 개신교 공동체를 완성하고자 했던 츠빙글리, 칼빈, 파렐, 존 녹스에 대해 공부하며 이들의 신앙의 유산을 배우고자 합니다. 또한 파리에서는 지금은 가톨릭 국가로 분류되지만 종교개혁 시기 치열하게 종교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위그노들의 흔적을 찾아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지역 중 하나인 아일랜드 지역을 방문합니다. 아일랜드는 개신교 지역인 북아일랜드와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는 담장 하나 사이를 두고 가톨릭과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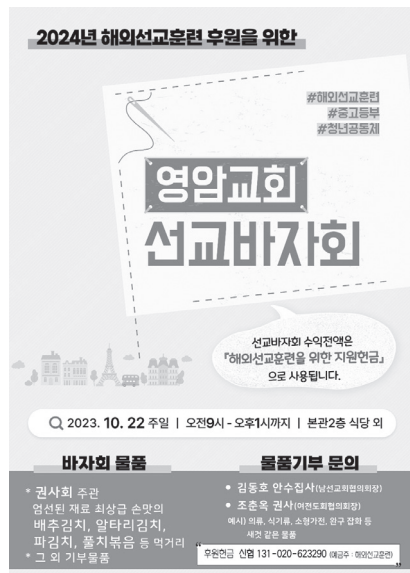
신교도 공동체가 분리되어 갈등이 극에 달했던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의 무장투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뒤로 하고 아일랜드와 영국은 1998년 평화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공로로 협정을 이끈 두 국가의 정상인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공부하며 한반도의 통일을 살아갈 다음세대로서 기독교인의 신앙에 기반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의 소명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Y**

선교훈련 참가자(총 23명)

1. **목회자**: 최석빈 목사, 임예제 목사, 송훈 전도사
2. **청년공동체**: 김현수, 김시은, 박은빈, 정문규, 원미래
3. **고등부**: 박예원, 김태희, 이정은, 신가은, 남궁술, 남궁승준(교사)
4. **중등부**: 김도희, 안예담, 남지윤, 김진성, 이고유, 어지만, 정하늘, 임하은, 안정원(교사)



2024 중고등부, 청년공동체 해외 선교훈련을 위한 영암교회 바자회 Report



2023년 10월 22일 중고등부와 청년부 해외선교훈련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열렸다.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 양성에 대한 필요가 더욱 중요해진 것과 맞물려 영암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계획된 것이다.

“준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코로나 이후 혼란스럽던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환경이 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게 되었지요. 해외선교훈련 준비과정에 큰 어려움이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경제위기의 여파로 힘든 시기였기에 바자회 개최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안에 교육위원장님의 추진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담당목사인 최석빈 목사님이 취지와 배경을 설명해주었다.

바자회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바자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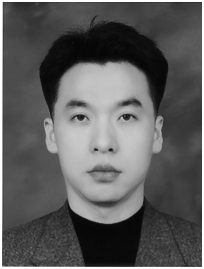
주관하게 된 권사회 권사님들은 바자회 2주전부터 모여 재료와 물품을 구입하고 손수 김치를 담갔으며, 여전도회에서는 많은 양의 물품을 기부하고 또한 기부를 받아 정리하며 헌신적으로 준비했다. 바자회 당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쁨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권사님들이 손수 담근 김치니까 몸에 얼마나 좋겠냐며 정성에 비하면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전했다. 선교를 위해서라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도 했다. 바자회 당일에도 미소를 가득 머금고 물건을 판매한 권사님들과 여전도회 회원들의 모습에 해외선교훈련에 대한 밝은 기대를 품을 수 있었다.

2024년 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중등부 8명, 고등부 5명, 청년공동체 5명과 사역자 3명, 교사 1명의 총 22명이 해외선교훈련에 임하게 된다. 이 다음세대들이 교회의 든든한 지원과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교회와 국가의 기독교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Y

〈영암지 편집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관택 장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장로로 임직된 이관택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저는 대광초등학교를 다니면

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예배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배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광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영암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중등부 시절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보다는 교회에 가면 친구들과 재밌는 일들이 많아서 교회가 좋았고 교회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면 오지 않는 저를 부모님께서는 걱정하셨고 저도 대입 준비를 핑계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군 제대 후 교회에 다시 나가야하나 고민하다가 1990년 다시 나왔고,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 친구, 선후배들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중등부 교사, 청년부 활동, 성경공부, 제자훈련, 찬양사역 등을 통해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등부 교사는 1990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34년간 근속하였습니다. 중등부 때 가르쳤던 제자들이 결혼을 하고 그 자녀를 가르칠 만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였습니다.

지난 34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부족함

투성이었던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제가 2022년 장로로 피택되어 1년간 교육을 통해 지난 11월 장로로 임직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영암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를 장로로 세우시고 이끄신 하나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합니다. 선배 장로님들과 협력하여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잘 보필하고 교회에 본이 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암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며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영암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에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

안수집사 직분을 받으며



최낙조 안수집사

오늘 편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늙은 것이고 이미 죽은 것이다.

늘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미래를 생각하니 광야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과정임을 믿습니다. 변

장한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광야는 인격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모든 근원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받으는 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자랍니다.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불가능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잠을 집, 일 사, 즉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 주의 일을 잡아서 종처럼 섬기는 사람. 집사가 감당해야 할 직분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집사의 원칙들입니다.

생각해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받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친구, 이웃, 형제, 스승들이 없었으면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다 대가 없이 받았습니 다. 크게 빚을 진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게 다른 사람에게서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도 지혜도 건강도 경험이나 지식조차 혼자 얻은 것이 아니라 다 받은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스스로 한 것은 '노력'입니다.

파리 한 마리가 창문 유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나 또한 지금

까지 조금 방향만 돌리면 되는데 계속 돌진만 하다가 저 파리처럼 이렇게 가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을 조금 바꿔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불편하다. 그러나 결코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하는 인생의 필수과목이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시 119-71)고 고백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말라'가 성경에서 365번 반복되듯이 두렵게 하는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자기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기도드릴때 마음을 열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기도, 종교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삶이 분주하다 하더라도 새해부터 하나님을 제쳐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감당하거나 자기 열심으로 하다보면 한계가 오고 힘이 들어 마귀가 일하게 됩니다.

불안 염려 두려움의 시대에 하나님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호기심으로 대하면 안되며 순종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듯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향존직분자로서 꼭 알고 행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Y

선배님들을 따라가겠습니다



안경원 권사

사전적 의미의 직분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권사의 직분은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인지. 피택 향존직 교육 교재에는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롬 16:1-2)라고 소개합니다. 뵈뵈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 준 사람이며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 교인과 바울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성경에는 권사의 직분은 없지만 뵈뵈는 성경 속의 인물 중 권사의 직분을 설명할 수 있는 예로 설명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권사의 직분을 설명한 ‘교인을 양육하는 행복한 권사’ 속에 나오는 권사는 신앙 상담자로부터 교사/구역장, 중재자, 목회의 동역자,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진 자, 심지어 자신을 온전히 경영할 줄 아는 기술을 가진 self-management의 소유자 등등 과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수퍼우먼으로 묘사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직분은 마땅히 해야 할 본

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이 감당해야 하는지 이 글을 준비하며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곳에서 우리는 권사님들을 사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하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조부님 세 분의 장례식을 모두 교회의 도움으로 치르며 받았던 그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집에서 치러졌던 조부님이 장례식에는 일생을 한 학자로 사셨지만, 임종 시 목사님의 복음 전함에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를 표하셔서 예배를 드리며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입관 예배를 준비하러 오셨던 정계호 권사님을 비롯한 상례 위원들의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장례 준비를 하는 중에 한 방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손수 바느질로 관보를 만드시어 관 위에 덮으셨던 하얀 바탕에 빨간 십자가의 관보는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봉사해야지 마음속으로 했던 다짐을 했었습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사로 섬기며 참여한 그 수련회만 해도 수십 차례가 되어갑니다. 그 매년의 수련회를 되돌아보면 그곳에는 항상 땀 흘리시며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시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김순성 권사님, 김효순 권사님 많은 권사님들께서 교회 식당 주방에서부터 산골 작은 교회의 야외 주방에까지 땀을 흘리시며 기도로 준비해 주신 그 손길들. 그 음식들을 먹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자리에 권사님들은 계셨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며 교회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연결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그 도구가 되어 섬기셨습니다. 그 모습들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어떤 설명보다 더 생생하고 더 자세하게 어떻

게 권사의 직분을 행하여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며, 주를 위한 헌신과 수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기에 낮은 곳에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임을 따라 그 성품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권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Y



장로

이관택 유준수 김민영 노용택 (4명)

안수집사

최낙조 최정원 하태철 이동일 김봉기 박봉근 남민관 오흥영 강윤중 장영준 (10명)

권사

정혜자 김희영 김정례 안경원 유부연 김지연 조은희 김수연 윤옥수 이선희 성외경
황은옥 김선경 손미선 이영 박희경 박정희 김주는 윤태주 염미경 (20명)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 이연옥 장로님



이흥숙 권사

우리 모두의 스승이시며 한국교회의 거목이신 이연옥 장로님(99세)께서 11월 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비보를 듣고 우리 기독교 여성들이 갑자기 고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만난 지도 반세기가 되었으니 세월이 무상하다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영암교회 사모님이셨지만 장년성경공부나 뱀엘공부를 가르치시는 스승이기도 하셨습니다. 뱀엘공부는 임옥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교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공부시간마다 성도들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구름떼같이 모였습니다. 성경 공부시간에는 인자한 어머니 스승님으로 재미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엘공부시간에는 엄격하고 무서운 스승으로 변하셨습니다. 예습 복습은 물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뱀엘 졸업할 때까지는 여행도 가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출산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열정적인 가르침을 넘어 강인한 인격과 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말씀을 열심히 배웠기에 오늘날 영암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여전도 회원들에게 강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바자회를 비롯해서 여전도회 활동이 많아서 회장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매년 12월 2일 장로님 생신에 여전도 회장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리셨고 직접 담그셨다는 물김치 맛은 일품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 같이 장로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주일마다 일찍 오셔서 영암 유치원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대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유상진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셔서 옆에 앉은 저까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로님의 교회 사랑과 열정적인 헌신과 지도로 인하여 오늘의 영암교회와 여전도회가 아름답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옥 장로님께서는 여성 교육과 전국연합회 발전에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전생애를 한국교회와 여성 교육에 헌신하셨습니다. 정신여고 교장, 전국연합회 회장과 명예회장, 장신대 이사, 서울여대 이사장으로 섬기시며 여성들의 평생 교육과 지도력 개발을 이끄셨고 1994년 여성 안수제도를 통과시키는데 절정적인 기여를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100년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한 분이라는 평가도 받으셨습니다. 장로님의 삶은 교회 안팎으로 많은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장로교회 여

성지도자상, 김마리아상, 국민훈장 동백장, 교회여성 지도자상 등등... 많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장로님께서는 자서전인 '향유 가득한 옥합'을 비롯하여 '여전도회학', '여전도회 백년사', '여전도회관 건축사', '교회 여성지도자 시리즈' 등등 많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이연옥 명예 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인해 오늘날 여전도회가 72연합회와 130만 회원으로 발전하였으며 명예회장님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인해 웅장한 여전도회관이 우뚝 세워져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로 여전도회의 역사이시며 산증인이셨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여성지도자를 보내 드렸지만 이연옥 명예회장님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은 여전도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계 제일 가는 여전도회로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Y



사경회의 은혜



손미선 권사

이 마음의 정체가 뭘까?
임직을 1주일 앞 둔 주일 저녁, 여러 감정과 생각이 뒤범벅된 듯한 마음의 상태가 낯설었습니다. 직분의 무게에 대한 부담감과 다른 한편 감사의 마음 등등 싱숭생숭한 마음이 정리가 안돼서 결혼하여 타 교회 권

사가 된 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언니가 기도해 주겠다며 임직식에 갈 테니 그 때 보자고 하더군요. 마침, 임직식 전 주간에 사경회가 있어서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사경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보통은 사경회 마지막 날 헌금을 하는데 사경회를 통해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첫째 날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모세골 공동체교회를 6년간 담임하시고 올 연말에 사임하신다는 유해룡목사님은 첫째 날부터 전통적 기독교적 사고에 반기를 드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간다’는 말이 과연 복음의 핵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후,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이신칭의) 구원받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나, 그것이 기독교의 큰 우산(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는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하고 한국 개신교에도 깊이 영향을 미쳤으나, 이신칭의는 우리의 믿음과 일상적인 삶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는 2%부족한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기 쉬운데 한국교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율법주의로 친절한 율법주의를 예로 드셨습니다. 즉, 성수주일하면 복 받는다. 십일조하면 복 받는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에 매이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어온 것들을 뒤흔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의인이 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당시 로마교회에는 두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율법의 세대를 사는 사람과 오늘 예수님의 세대를 사는 사람. 로마교회는 두 가지를 혼합해서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영적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영적예배의 원어의 의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끌고 오신 세대를 알고 믿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나?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서에는 예수 믿고 의인돼서 천국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 간다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끌고 왔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냐?

그 이후, 공생애 사역 내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시다가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하던 것을 그대로 하도록 훈련하고 파송하셨

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20절에 나오는 가르쳐 지키라고 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복음서에는 천국과 하나님나라 두 용어가 나옵니다. 천국은 장소를 말하는 인상을 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끌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종말을 향해서 가는 종말론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끌고 오신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사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 아직 불완전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갈 필요가 없고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서 봐야 되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지붕이라고 하면, 이신칭의는 기둥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즉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물질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물질에 내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면 물질은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생

명이 물질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 달려있음을 믿을 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관의 변화입니다. 가족관을 확대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 예로 천주교의 대부, 대모 제도와 공동육아를 하는 당진의 한 교회, 우리나라의 품앗이 풍습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관의 변화입니다. 죽고자하면 살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는다는 말씀처럼, ‘내가 썩어야지’하면 썩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져야지’하면 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고정관념-걱정, 수고, 희생이 없는 곳으로 보거나 윤리적으로 보면 안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재입니다.

이상은 사경회 첫 날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처음 영암지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는 글을 이렇게 쓰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돕기 위해 영상으로 사경회 말씀을 다시 보다가 말씀의 방대함과 깊이에 보는데만 3일 이상 걸렸습니다. 집에서 나 홀로 사경회를 다시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경회 말씀이 제게 큰 깨달음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깨달은 말씀대로 씩씩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지금, 여기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자 목표이겠지요. 사경회를 통해 은혜 주시고 영암지 원고를 쓰느라 두 배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Y**

예담동산 98기를 다녀와서



양승배 안수집사

다녀오신 많은 분들을 통해 예담동산이 사랑의 영성 훈련 과정인 은혜의 동산으로 전해 들곤 했습니다. 때때로 참여의 권면도 받았지만 그간 여러 상황으로 참석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항암치료 중이신 장모님의 병간과 급변한 회사의 운영환경을 지난 1년 남짓 쉼없이 견뎌내고 있던 아내에게 지난 여름에 접어들면서 조금은 쉼을 주고 싶던 참이었습니다. 때마침 아내가 예담동산 소식을 접하고 부부참석으로 신청해서 새로운 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정이어서 당혹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혼시절 아내와 간헐적으로 다녀오곤 했던 기도원도 떠올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예담동산 98기 주바라기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 참여소식을 접한 분들과 먼저 다녀오신 분들의 격려가 많아서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일정으로 참여하는 것은 예외적이라는 의견도 접했으며 덕분에 예담 동산 진행과정 중에 간간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녀온지 100여일이 넘어서면서 조금씩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있지만 글을 준비하며 매우 빠듯한 일정 가운데 행복하고 감동적이었던 당시의 순간 순간이 떠오르곤 합니다.

지난 8월 6일(주) 오후 교회에서 13명의 일행과 함께 남궁집사님의 안내로 출발해 여름해가 지평선 너머로 조금씩 누엠틈할 무렵,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배정받은 숙소에서 여장을 풀고 시작된 일정은 퇴소는 시간까지 제법 강도높고 타이트한 프로그램의 연속이었습니다.

둘째날 이른 아침식사 후에 바로 반 배정을 하며 시작된 예담동산 98기는 총 67명내외의 참가인원을 성별, 연령대별, 교회별 등으로 안배하여 8개 그룹 정도로 분반이 되었는데 저는 신계영집사님, 장영준집사님 등과 구원의 팔방에 소속되어 줄곧 함께한 각별함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절박함으로 구원을 갈구하는 구성원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다소 서먹하고 어색함으로 시작되었던 분위기는 말씀과 찬양과 율동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조금씩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 우스꽝스러운 분장과 코드로 마음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어 가며 이윽고 모두 하나되어 은혜가 넘치는 상황들이 연출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반납한 이후 세상과의 짧은 단절로 침묵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 마주하며 동산지기의 로요와 함께 시작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담동산을 먼저 경험한 선배 주바라기님들의 팔랑귀를 통해 순간순간 영혼이 깨우쳐 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쉽없이 기도하고 돌아보며 신앙인으로서 부족했던 저 자신에 오롯이 몰입하며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셋째 날 세족식은 뜨거운 감동이었고 마치

막날 방문하신 담임목사님과 교우분들을 마주하며 가족들을 대면하는 듯한 반가움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른 새벽 먼거리를 달려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담동산 전 과정에 영성훈련원장인 백성훈 목사님과 운영국장님으로 섬긴 구제상 목사님등 동역하는 목사님들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상큼식과 숙소정돈, 식사안내등 이모저모로 자리를 지키신 도우미님들, 은혜로운 찬양과 율동을 인도한 Song Team등 밝은 모습으로 섬기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담동산 이곳저곳에서 낮이 익은 영암의 도우미님과 섬김이님들을 오며가며 조우할때는 반가움을 넘어서는 각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 늦은 시간대에 일상을 마무리하고 침상에 들 때 머리맡에 놓여있던 영암교우님들의 격려의 글들을 마주할 때면, 신병교육대의 고된 훈련을 마무리하고 취침전에 마주하는 위문편지를 대하듯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귀한 말씀들이 두고두고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거의 매 프로그램마다 함께 많은 찬양을 했지만 특별히 식사를 하러 갈때면 데 콜로레스를 열심히 합창하곤 했습니다. '데 콜로레스(De Colores)'는 '빛과 함께'로 의역되는 스페인의 민요로 카톨릭신자들의 영성훈련때 많이 불리우고 있는 곡인데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자연의 일상(범사)에 대한 감사 등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담은 노래입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참 열심히 암송해야 했던 곡이었습니다. 예담동산을 마무리하고 귀가 후에도 한동안은 아내와 집 근처 성북천을 거닐며 읊조리곤 했는데 노랫말의 귀함을 지금

도 간간히 떠올려 봅니다.

귀한 열정과 섬김으로 준비된 강의, 찬양, 율동등 여러 다채로운 과정 과정마다 울고 웃으며 부족했던 제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갓길에 오르며 곧추세웠던 결심들이 현실의 생활속에서 지속가능하고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삶의 여정가운데 영암 신앙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금은 더 말랑말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며 섬기고 싶습니다.

환송식과 환영식을 통해 격려하고 귀한 일정을 돌아보게 해 주신 저희 교회의 섬김이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담동산으로 인도하시며 진실로 저희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Y



영암학당을 통해 받은 풍성한 은혜!



강미량 권사

해마다 12월은 한 해를 돌아 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23 년은 특별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어 현장예배를 드리는 감격 속에 지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예배 때 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암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린 줄 믿습니다. 또한 영암학당을 통하여 받은 은혜도 너무 크기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영암학당을 간략히 소개하면 영암학당은 봄학기(3월-6월)와 가을학기(9월-11월)로 진행되며 주일과 수요일에 열립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는 4주간의 특강이 진행되지요.

강의 내용은 주로 성경공부와 조직신학 내용과 교리공부, 기독교 문화사등이며 다양한 내용을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서 열정을 다 하여 재미있게 가르쳐 주십니다.

2023 년도 강의는 1월에 겨울특강으로 서우진 목사님께서 '거룩한 산책'으로 레위기 19장을 4강으로 나누어 강의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시면서 거룩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시며 특별히 우리 영암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사회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통찰을 얻게 해준 강의였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봄학기 강의는 최에스겔 목사님께서 '다시 쓰는 성도행전'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8강으로 나누어 한 장 한 장 자세하고 쉽게 사도들과 바울의 전도여행을 열강해 주셨습니다.

세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돌보기를 멈추지 않았던 바울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 써야 하는 성도행전을 믿음으로 담대히 써 내려가길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7월에 여름특강으로는 이철웅목사님께서 '예배란 무엇인가'를 예배의 신학, 예배의 영성, 예배의 구성, 예배의 일상 이렇게 4강으로 나누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 대한 귀한 강의를 들으면서, 예배를 통한 임재가운데 나의 마음의 중심을 거둬들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두려움 없이 주저함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삶으로 돌아갈 때 은혜가운데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놀리고 위축된 마음이 일으켜진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심을 기억하라. 우리는 다 알아차릴 수 없을지라도 예배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전혀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파송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아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된 가을학기 강의는 서우진 목사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란 주제로 여호수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개관설명과 함께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교재를 만들어서 8강까지 정성스레 가르쳐주셨습니다. 통독과 묵상을 할 때 다시 복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진행된 영암학당 강의는 현장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접할 수 있어서 감사했지만 역시 현장 강의가 더욱 집중이 잘 되고 강의해 주시는 분과 소통 교감 할 수 있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수요일영암학당 봄학기에는 임예제 전도사님께서 '시편 산책'을 강의해주시고 김영한 전도사님께서 '성경 66권 하나의 이야기'를 강의해 주셨습니다.

'시편 산책'은 시편으로 예배드리기, 나만의 시편쓰기, 시편의 영성 등을 주제로 강의해 주셨는데 150편의 시편을 5권으로 이루어진 구성으로 각 권의 특징과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시편을 새롭게 다양하게 묵상하는 통찰을 주셨습니다.

'성경66권 하나의 이야기'는 성경을 모세오경, 왕정 500 년, 페르시아 7 권, 중간사 400 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 년, 공동서신 9 권을 통으로 외워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법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셔서 다음세대들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월부터 시작된 수요일영암학당 가을학기는 김상규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를 서예림목사님께서 '칼뱅의 기독교 강요해설'을 강의 해주셨습니다.

특히 기독교 강요해설은 4번의 강의를 통하여 조직신학 강의를 1학기 때 배운 것처럼 4권의 주제와 각 장의 핵심을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잘 가르쳐주셔서 기독교 교리의 뼈대를 선명하고 든든하게 다시 세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3 년 한 해 동안, 주일과 수요일 그리고 새벽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영암학당의 배움이 영암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위한 두 기둥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루에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주면 금방 다 빠져나가고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듯 강의를 들을 땐 새롭게 깨닫게 된 강의 내용으로 감격하고 감동을 받게 되지만, 7학년이 되면서부터 며칠이 안 가서 아깝게도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영적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영암의 성도님들께서 영암학당을 찾아주셔서 정성껏 준비한 강의를 통해 함께 은혜받으시길 바라며, 영암학당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목사님들과 서동화 팀장님, 김수연 부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

2023 일대일



김홍석 장로
(양육훈련부장)

2023년 한해동안 풍성한 ‘일대일제자양육훈련’이 진행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며 2023년에는 교회 곳곳에서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20개팀의 양육훈련이 은혜롭게 진행되었고 17개팀은 수료식까지 완료하였으며, 양육자과정도 1월

28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의 과정으로 은혜 중에 마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육자와 동반자로 연결된 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한 팀이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16주간의 여정을 진행하였으며, 기간 중에 양육자는 양육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사랑으로 동반자를 양육하고, 동반자는 동반자로서 양육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실히 과정을 감당하여 17개팀의 수료에 이르렀습니다.(현재 3개팀은 과정 진행중입니다.)

16주의 과정을 완료하면 수료식을 양육훈련부 지도목사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히 가능한 동반자의 가족도 참석한 가운데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소감을 나누고 수료증을 전달하며 축하의 시간을 갖는데, 수료식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격을 간증하는 동반자와 양육자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흔히 일대일제자양육훈련의 최대 수혜자는 양육자라고 합니다. 양육사역을 통하여 양육당사자가 은혜를 받기 때문이겠지요. 올해만 3명의 양육자를 섬기고 현재 1명의 동반자와 과정을 진행중인 김웅태장로 역시 일

대일제자양육을 통해 매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반자의 사역기간 동안 내조 또는 외조하며 함께한 배우자들이 전하는 동반자의 성장과정과 변화된 모습은 일대일제자양육 훈련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게 해 줍니다.

특히 올해는 임직식이 있었던 해로써 임직을 앞둔 예비 향존자들이 교회가 정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일대일제자양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일대일제자양육훈련의 수료는 분명히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양육자들이 배출되었음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1월 28일부터 4주간 진행된 양육자과정을 통하여 기 수료한 3명을 포함한 2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대일제자양육훈련을 든든히 이끌어 갈 새로운 양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김의 선봉에 서서 잘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는 양육자 개인별로 1명 이상씩 동반자를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계속하여 훈련이 진행되고 수료한 동반자들이 양육자반을 통하여 양육자로서 귀한 역할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양육자들에 대한 계속교육도 계획해 봅니다.

우리교회가 2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제자양육훈련이 새가족부 사역 및 소그룹 사역 등과 어우러지며 교회를 견고히 하는 큰 역할 잘 감당하는 훈련으로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영암지 첫 호에는 누가 간증을 나누어 주려나 궁금하네요. 기대해봅니다. Y



▲ 김웅태-유수빈



▲ 강소영-박명옥



▲ 류문일-어정민



▲ 김웅태-남민관



▲ 정연안-박영훈



▲ 길학철-유준수



▲ 강미량-성외경



▲ 김웅태-김민영



▲ 서경희-김희영



▲ 안경원-이선화



▲ 홍윤-염미경



▲ 심상훈-김동호



▲ 임현철-최정원



▲ 장영준-이승윤



▲ 김혜선-윤옥수



▲ 이경숙-김미숙



▲ 조영주-김선경



▲ 양육자과정

어? 성경이 읽어지네! : 구약 · 신약 성경일독학교



유부연 권사

제가 처음 ‘어? 성경이 읽어지네!(여성경)’ 콘텐츠를 접한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당시 유아부전도사님이셨던 임영신전도사님께서 부모교육 시간에 구약과 신약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꽃보다 더 달다고 하는데 제게도 그 맛을 좀 알게 해 주세요’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자주 듣고 알고 있는 스토리와 구절이 나오면 반가웠지만 레위기, 민수기, 열왕기상 · 하, 역대상 · 하, 많은 예언서들은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오는 이름들도 생소하고 지명들은 더 모르겠고... 신약은 좀 나은가하면... 신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인데 정말 잘 읽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재미나고 신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 강의를 들으면서 사도행전을 읽는데 처음으로 너~무 재미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이런 책이었구나! 눈이 뜨이고 나만 알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여성경을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 때는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고 특히 나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수 있는 엄마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문강사스쿨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강사스쿨에서 공부하면서 학창시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신이 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3 수험생이 따로 없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며 금광을 캐는 것 같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7월에 전문강사 자격증을 따고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성경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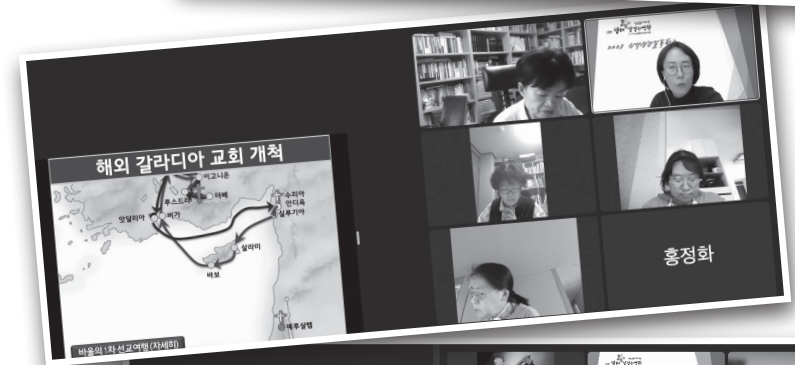
‘여성경 : 구약 · 신약 성경일독학교’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구약 14주(3월~6월), 신약 13주(9월~12월)로 진행이 됩니다. 2023년에는 화요일 저녁반(8시~10시), 목요일 오전반(10시~12시)으로 2개 반이 운영이 되었고 강의는 2시간 동안 줌(ZOOM)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15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성경강의와 강의 후 성경 읽기로 진행이 되어서 성경일독학교를 하시면 1년 동안 성경을 1독하게 되는 콘텐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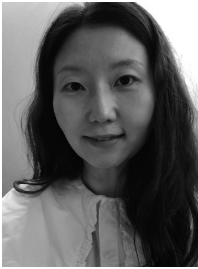
2024년 성경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많이 어려우셨던 분들, 성경을 재미나게 읽고 싶으신 분들은 여성경 콘텐츠를 통해 2024년도에는 성경일독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TIP : 성경을 같이 읽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그룹을 만드셔서 참여해 주시면 1년 동안 그룹이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그룹, 다락방그룹, 소그룹모임, 청년 공동체, 가족모임, 친구들과끼리... 성경읽기는 혼자하면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룹으로 함께 읽으면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Y



성경 일독을 마치며



권은경 성도

저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맞은 때에 영암교회로 부르시며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믿음생활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딸 나연이를 키우며 저 또한 아이와 같은 나이로 돌아가 함께 성장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했습니다. 아이를 보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어떤가 돌아보니 너무 나약하고 게을러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에 새로운 소모임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매일성경을 읽으며 매일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쁨과 평안을 나누다보니 성경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도 더 커졌습니다.

청년 때부터 소망해왔지만 과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게을렀던 탓에 번번히 실패했던 성경일독.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성경말씀들을 이해해가며 끝까지 완독하고 싶다는 소망이 다시 생겼을 때 마침 인도해 주신 곳이 이 성경일독학교 공부방이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면서 더 알게 된 내용이지만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스타일, 공동체, 연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저에게 순종의 마음까지 더해 주신 것도 놀라웠습니다.

믿는 모습, 사는 모양, 다 달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더 가까워지는 감사와 주일 말씀이 기다려지는 은혜가 더해졌습니다.

혼자서 읽는 성경도 좋지만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와 배경지식을 배우며 말씀을 따라 가다보니 말씀 안에서 더 입체적으로 이해되는 즐거움과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지혜를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 또한 부어주시며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저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바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몇 번이고 도전만 하다 끝난 성경읽기를 여럿이 함께 격려하며 나누며 읽다보니 어느덧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며 말씀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일년 동안 성경공부방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유부연권사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Y



서경희 권사

눈 뜬 소경

오래전 제자훈련 때였다. 훈련에 일환으로 그해 여름 영성생활수련회(영생수)를 갔다. 첫날 저녁 집회에서 목사님은 마태복음 20장32절 말씀을 주시면서, 소리 질러 부르짖는 소경들 앞에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만일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숙제를 주셨다.

그때의 나는 성경 지식도 없었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 교회를 다닌 년수는 오래되었어도 뜰만 밝고 다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교회에 깊이 들어와 성경공부도 하고 또래들과 교제하며 조금씩 교회 공동체 생활을 알아가는 중이었다. 그런 나에게 목사님의 숙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만일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 '경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생활이 어려워니 돈을 좀 벌게 해 달라 할까?' 아님 '딸아이가 고시공부로 힘들어하니 얼른 되게 해 달라 할까?' 아님 '아들의 꽃집이 좀 잘 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릴까?' 하지만 믿음이 없는 나도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았다. 며칠 생각해도 모르겠어서 고민하다 잊었다.

그 때로부터 3년 후 교회에서 마태복음 강의를 있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강의 하던 목사님으로부터 영생수에서 받았던 동일한 숙제를 받았다. 나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나의 상황은 그때에도 조금도 변화가 없는, 오히려 더 심한 광야를 헤매고 있었다. 다시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그 문제에 대해 기도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 중 주님은 내 아둔한 머리를 뺨 뚫는 깨달음을 주셨다. 내가 바로 눈 뜬 소경이었음을 알게 해 주신 것이다. 그날의 기쁨을 나는 잊지 못한다. 내가 눈 뜬 소경이라 눈은 떴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들어도 귀머거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음을 깨달은 것이다. 아! 그것이었구나. 그 후 나는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부르짖은 맹인들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은 나를 매우 기쁘게 했다. 오래 품었던 질문의 응답이었다. Y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박재혁 목사

飲水思源(음수사원)-물을 마실 때마다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

반갑니다. 박재혁목사입니다.

성도로,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붙드는 사자성어가 음수사원입니다.

24년 새해, 무엇보다 영암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면을 통해 먼저 인사드립니다.

영암교회는 신대원시절, 한국교회사 수업시간에 小石임옥목사님에 대해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영암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가슴이 설레입니다.

저는 언더우드선교사님이 세우신 서교동교회에서 어린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며 자랐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았던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시고, 목회자로 신실하게 사역하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10:45)’

23세, 군 전역 후 뜻하지 않게 생긴 난치병(재생불량성빈혈)으로 인해 난생 처음 무균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골수이식 수술을 앞두고 성분수혈과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혈 속에서 큰 힘과 위로를 얻었고, 하나님은 수술 대신 약물치료를 통해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죄와 사망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심을 眞하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또한 혈기가득한 20대 시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만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어 질병을 극복해 갔던 시간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29살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하나님은 저를 신대원으로 인도하셨고, 그때 함께 기도하며 청년활동을 하던 자매가 지금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완치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결혼 후에도 자녀출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약물치료가 기형아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자녀출산을 위해서 약물치료를 6개월 이상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아내를 온전히 닮은 첫째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준수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첫째 아들은 의준(義俊)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하나님은 예쁘고 사랑스런 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나라(나엘)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眞光不輝(진광불휘) -참빛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대원 시절 찾아뵈었던 선배목사님께서 조언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목회자가 아닌, 일평생 주님만을 주목하는 목회자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목회자 이전에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감사합니다.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신 자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새힘 주시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새해 영암교회에서 새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 가득한 목사님, 마음 따뜻한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2024년,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Y



선한 씨앗을 심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길 소망합니다



김기동 목사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4년
부터 4교구, 3040공동체, 교육
위원회를 담당하게 된 김기동
목사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 감사가 넘칩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과천교
회에서 3040교구와 교육위원회를 잘 섬길 수 있었습
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암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
셨습니다. 앞으로 영암교회를 섬기며 성도 여러분 가
까이에서, 기도와 사랑의 목회자 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부족한 저와 가족(아내 정다혜, 아들 김주원, 딸
김하윤)을 위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겐 좌우명처럼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린 시절의 가훈이자 좌
우명처럼 간직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빛어 가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가장 좋
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
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겠
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가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합
니다. 가는 길에 꽃씨를 뿌린다면 내가 지나온 길로
꽃이 많이 필 것이고, 얼마 있지 않아 열매도 맺을 것

입니다. 그렇기에 영암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
며, 웃으며, 선한 씨를 많이 심는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목사 되겠
습니다. 사랑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
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 하려고 살고, 그 말 하게 하려고 살고
싶습니다. 영암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
다. 축복합니다. **Y**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길



조예은 전도사

안녕하세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2003 년도 7월부
터 영암교회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조예은 전도사입니다. 저
는 목회자인 아버지의 밑에서
성장하여 어릴 때부터 교회에
서 자라고 나서 교회라는 곳이
너무 익숙한 장소입니다. 아버
지의 목회 일을 따라 대구에서 있다가 대학교 때 서울
에 올라와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4년의 과정을 졸
업하고 영암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영암교회 바로 옆인 대광고등학교에
서 고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종교수업을 진행하는 종교
교사와 기독교학교의 채플예배에 찬양인도자로 섬기
고 있습니다. 제가 대광고등학교에 들어오자마자 하나
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어릴 때부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선생님들의 사랑
과 목사님들의 사랑을 받아 아무 탈 없이 살다가 대학
교 졸업을 하고 취업 후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학교 선
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 저에게는 매일 매일이
시험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성적에만 몰두하는 입
시 경쟁의 과열화와 자기 성적에만 쫓기려고 하는 학
생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통해 제 안에 점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어느 순간 저도 학생
들에게 나의 이익을 강조하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
사의 모습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말씀은 바로 사랑이란 의지적인 결
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 사역뿐만 아니
라 영암교회의 목회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오는 것이라
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사역과 학교사역에 부르신 이
유는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잃
어 자기에게 유익만 되는 것을 찾아 살고 어려운 이웃
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
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가장 높은 곳이 아
니라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늘 깨달으며
의지적인 결단으로 늘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교역자
가 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은 자기 유익의 사랑이 아니라 매일 정말 사
랑하는 중등부와 교역자 분들, 성도 분들을 품기 위한
저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저는 주님께 늘 고백합니
다. “주님,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목마르고 메말
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병든 자도 치
료케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갇혀 있는 자도 자유
하게 하시는 사랑이니, 주님 오늘 하루도 중등부와 학
생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등부에게 부어주실 그리스도의 사
랑을 기대하며 받은 사명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성도분
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Y**

아틀리에 메멘토 모리② 사랑을 촉진 시키는 죽음에 대한 생각



강진구 안수집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남긴 메시지

매 학기 대학에서 ‘죽음학’을 가르칠 때마다 첫 시간에 빼놓지 않고 보는 영상 하나가 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Love Actually, 2003)의 첫 장면이다. 첫 대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우울할 때 나는 히드로 공항을 떠올린다. 세상에는 증오만 가득 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부부, 부모 자식 사이, 남녀 간 오랜 친구 사이에도. 9.11테러 희생자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남긴 건 모두 사랑의 메시지였다. 찾아보면 사랑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9.11테러 당시 이슬람 테러집단 알카에다가 납치한 여객기는 총 4대였다. 그중 2대는 쌍둥이 빌딩으로 알려진 뉴욕의 국제무역센터에 충돌했고, 또 다른 여객기 한 대는 국방부, 즉 펜타곤에 추락했다. 알카에다의 여객기 납치 작전 중 3대는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 남은 여객기 한 대는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으로 향하던 중 피츠버그 남동쪽 상크 빌 들판에 추락하는 바람에 알카에다의 목표는 실패하고 말았다. 유나이티드 93편으로 명명된 이 여객기에 타고 있었던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테러범들은 모두 사망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 유나이티드 93편의 블랙박스 회수되어 판독결과가 발표되었다. 테러범들에 의

해 납치된 여객기의 승객들은 죽음의 공포에만 휩싸인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테러범들과 격투를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결국 승객들의 용기 덕분에 테러범들의 백악관 테러는 실패로 돌아갈 수 있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그 이후 또 시간이 지나서 밝혀진 승객들의 통화 메시지였다.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몇몇 승객들은 휴대폰을 들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당시 전송된 메시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무엇일까?

1.“엄마! 나 마크야. 우리 납치 당했어. 저기 세 명이 있는데 폭탄을 가졌대...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승객 마크 빙햄이 피랍직후 어머니 앨리스 호글런에게 마지막으로 건 전화내용)

2.“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우리 딸 에미도 정말 사랑해. 그 애 좀 잘 돌봐 줘. 당신이 남은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꼭 행복해야 돼. 나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할꺼야. 그리고 그 결정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꺼야.” (승객 제르미글릭이 부인 리즈베스에게 마지막으로 한 전화 내용)

3.“여보, 나 브라이언이야. 내가 탄 비행기가 피랍됐어. 그런데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되면... 여보 인생 즐겁게 살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 알지? 나중에 다시 봐.” (승객 브라이언 스위니가 부인 줄리에게 자동 응답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남긴 전화 메시지)

죽음의 순간에 남긴 사랑의 메시지

유나이티드 93기에 탑승했던 희생자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남긴 건 모두 사랑의 메시지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죽음을 코앞에 둔 순간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마련이다. 눈앞에는 납치범들과 승객들과의 격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기는 지상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한다. 분명 1,2분 뒤에는 모두가 죽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한 그때 당신이 가족에게 메시지를 남긴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아들아, 서울대 가야 출세하니 공부 잘하거라!’도 아니고 ‘여보, 강남 불패 알지? 아파트는 무조건 강남이야!’도 아니란 사실이다. 살아있을 때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세속적 성공에 대한 생각들은 막상 죽음의 순간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 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던 가장 중요한 생각들이 불현듯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사랑’한다는 말이다.

수업시간에 이 장면을 보여주고 나면 학생들에게 실행 과제 하나를 내주곤 한다. “자 모두 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요즘 대학생들은 사춘기와 입시를 통과하면서 부모님과 살가운 대화를 나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또 사랑이 죽음 앞에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면 살아있을 때 당장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진행한 일이다. 그런데 지난 봄 학기에 너무 웃픈(웃기면서도 슬픈)일이 벌어졌다.

부모님께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 후 한시간 쯤 지났을까. 갑자기 강의실 문이 열리면서 한 중년의 남자가 들이닥쳤다.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여학생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 우리 모두는 직감할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의 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딸은 저도 모르게 ‘아빠’를 불렀고 이렇게 때아닌 부녀상봉 장면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었다. 다행히도 두 부녀가 무안해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해준 일은 정말 고마운 일이었다.

이 해프닝의 본말은 딸의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아버지는 마침 지난 밤 딸아이와 다툼 데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딸로부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받은 일이 없었던 터라 딸아이에게 무슨 변고라도 생긴 줄 알고 학교로 급히 찾아오게 된 것.

죽음은 가장 중요한 일을 떠올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이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죽음의 촉박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아니라 지금 삶이 계속되고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교육이 필요한 세상

20여 년 전 대학생들에게 죽음을 강의한다고 했을 때 돌아온 반응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이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젊어서 죽음을 반기는 일 또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정신없이 경제성장에만 몰두한 채 비인간화된, 즉 문제 있는 삶을 살아왔음을 깨달은 현대의 한국인이 찾은 것은 ‘웰빙(Well-being)’이었고, 급격히 고령사회로 치달고 있는 지금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요즘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은 ‘웰에이징(Well-aging)’이다. 그러나 행복한 인생의 완성은 ‘웰다잉(Well-dying)’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교육받는 일은 더 중요하다. 죽음을 배우고 죽음을 생각하는 일은 숨을 쉬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삶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원천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죽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존재가 되게하며 더 나아가서 행복에 이르는 지혜자로 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Y

새가족부를 마치면서



김영자 권사

제가 영암교회를 출석하면서 처음 시작한 봉사가 안내 봉사였습니다.

그 당시 1 년에 분기별로 정해져 있었고, 저는 현관 안내 담당자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안내자는 한복을 입어야 했기에 겨울에는 엄

청 추웠습니다.

어느 해 겨울, 새가족부 봉사자이셨던 이은숙 은퇴 권사님께서 제게 따뜻한 차를 한잔 건네주셨습니다. 몸을 녹이려 잠시 들어갔던 새가족부와 인연이 되어 시작된 봉사가 어느덧 은퇴까지 은혜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이곳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여러 사람들과의 공동체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제게 인내와 겸손, 화합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새신자에게는 새가족부 봉사자의 마음과 자세가 처음으로 전달되기에, 우리의 모습에는 온유와 평안이 있어야함을 매주 느꼈습니다.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며, 기도로 도와야 하는 곳이 새가족부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8시20분에 경건회를 준비합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를 마친 후, 새신자 보고, 새가족부 근황, 기도제목을 나눈 후 본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새가족부원들은 모두 교육을 받고 일대일로 새신자 한분씩 5주를 섬깁니다. 첫주는 목사님 면담을 시작으로 4주가량의 섬김을 거쳐 교회탐방 및 본당 환영식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 일 년에 두 번 정도 당회실에서 담임목사님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예전에는 일 년에 한번 그 해 등록된 새신자들과 함께 소예배실에서 환영식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6년도인데 새가족 환영식을 계획하면서, (당시 새가족부담당 광승현목사님, 전도봉장로님임) 본당에 장의자를 모두 밖으로 꺼내고 본당에서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본당의 장의자를 모두 치우고 본당을 새롭게 세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새가족을 위해 준비하고자하는 마음과 기도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행사였습니다.

그 때 오셨던 새신자 중 한 분이 기노창 안수집사님이십니다. 다음날이 주일이라 본당 의자를 다시 제자리에 두어야 하는데, 은혜를 들흔받은 기노창집사님이 정리를 도와주신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새가족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성장이 있습니다.

교회의 5대 목표,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가 모두 실행되는 새가족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새가족부에서 은퇴까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Y**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정숙
(2여 대광2)



이신혜
(7여 다락방1)



정재은
(7여 다락방4)



고정자
(한나 보문3)



박세진
(4남 삼선)



김진화
(6여 삼선)



윤춘자
(1여 안암10)



조영재
(청년)



강상대
(3남 돈암평창)



김지은
(7여 보문5)



조혜숙
(7여 다락방4)



오은정
(3여 안암1)



김은정
(7여 안암1)



김주승
(청년)

[2023년]

찬양대헌신예배 6월 4일(주일) 오후

교육부서 해피파티 6월 11일(주일)

남선교회 순회헌신예배 6월 18일(주일)

6.25 기념주일 6월 25일(주일)

교사주일 교사헌신예배 7월 2일(주일)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 7월 8,9일(토, 주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7월 15,16일(토, 주일)

초등1부 여름성경학교 7월 22-23일(토, 주일)

초등2부 여름성경학교 7월 21-23일(금-주일) 가평

중등부 여름수련회 7월 28-30일(금-주일)

고등부 여름수련회 7월 27-29일(목-토)

청년부 여름수련회 8월 13-15일(주일-화) 경북 봉화

영암학당 여름특강 7월 16일(주일)-8월 6일(주일) “예배란 무엇인가”
이철웅 목사

예닮동산 98기 8월 6일(주일)-9일(수) 3박 4일 양주 예향교회
주바라기 13명 참석(김미숙, 김분경, 박인옥, 박정희, 신계영, 양승배,
유수빈, 윤옥수, 장영준, 정아영, 조혜선, 조영재, 최윤선)

우신장학금 전달식 8월 20일(주일)

2024 해외선교훈련팀 발대식 8월 20일(주일)

교육부 여름사역보고회 9월 3일(주일)

영암학당 가을학기 9월 3일(주일)-10월 29일(주일) “허락하신 새 땅
에 여호수아 읽기”

서우진 목사, 9월 6일(수)-10월 4일(수) “갈라디아서 산책” 김상규 목사

전도학교 및 상시전도대 9월 12일(화)-12월 12일(화)

늘푸른대학 개강 9월 20일(수)

성찬식, 세례 입교식 9월 24일(주일)

본관 환경개선공사(냉난방 및 화장실) 10월 5일(목)-11월 10일(금)

추수감사주일, 찬양한마당(지단체별 찬양 발표) 10월 8일(주일)

이단특강 (1) 10월 11일(수) 신현욱 목사(구리이단상담소 소장),
(2) 10월 18일(수) 윤재덕 소장(종말론 상담소 소장)

늘푸른대학 소풍 10월 19일(목) 경기도 퇴촌

해외선교훈련 후원을 위한 선교바자회 10월 22일(주일)

로템문화교실 글쓰기 일일특강 10월 22일(주일) 나를 쓰고 하나님을
읽다(소재웅 목사)

가을특별새벽기도회 10월 23일(월)-27일(토), 주재: 평온한 마음은(잠
14:30)

서울북노회 제81회 정기노회 10월 24일(화) 장위중앙교회

새가족부 수련회 10월 27일(금)-28일(토)

사경회 11월 8일(수)-10일(금) 주재: 천국백성으로 삼시다(마4:17),
유해룡 목사(모새골공동체 담임)

3040 여성모임 11월 5일(주일)

교회창립 69주년 기념주일,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11월 12일(주일)

신임집사 교육 11월 5일(주일)-26일(주일)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회 11월 16일(목)

우리동네 가을음악회 11월 19일(주일) 카페 로템

드림미니스트리 다음세대를 위한 세미나 (1) 11월 19일(주일) 부모면허
(박인경 코치) (2) 11월 26일(주일) 아이들의 삶의 자리 이해하기(고재국
변호사)

사회봉사주일(대림절 밀알헌금) 12월 3일(주일)

전도부 헌신예배, 레바논 선교보고 12월 3일(주일) 오후찬양예배,

장영배 김사랑 선교사

당회원 수련회 12월 9일(토)

몽치자 남선교회 12월 10일(주일)

새가족 환영 오찬(담임목사와 함께) 12월 17일(주일)

교육부 성탄축하발표회 12월 24일(주일) 오후찬양예배

성탄절 예배 12월 25일(월), 유아세례식

중고등부 크리스마스 음식 바자회 12월 25일(월)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주일)